

세계일보

2015 .01. 02

국제갤러리(주)

영국 조각가 데이비드 내시 전 (25일까지 국제갤러리)

야생에서 발견한 죽은 나무들에 형태를 부여하는 오브제 작업으로 잘 알려진 작가. 죽은 나무만을 재료로 ‘환경적이고, 윤리적인’ 방식의 작업으로 유명하다. 그가 사용하는 나무의 종류는 캘리포니아의 삼나무부터 홋카이도 느릅나무, 굴참나무, 너도밤나무, 주목, 호랑가시나무, 유칼립투스 등으로 다양하지만 작업 방식은 동일하다. 작가와 자연의 내적인 상호 연결성을 중시하는 그는 “자연과 소통할 때 생명에 대한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자신의 작업은 자연에 대한 헌신이자 열정이라고 말한다. (02)735-8449

